

아이네임즈 김태제 대표

“보시행은 불자로서 당연한 도리일 뿐”

“스님처럼 출가를 한 것도 아니고, 수행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 제가 불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제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불교사회공헌 활성화기금으로 참여불교재가연대에 1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쾌척하는 등 국·내외를 넘나들며 불교계 곳곳에서 보시행을 펼치고 있는 아이네임즈 김태제 대표(51). 김 대표는 현재까지 북한 어린이 내의 지원, '사랑의 교복 나누기' 교복비 지원, 조손가정아동 정보화교육 지원,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 좁머인 지원, 인도·티베트 난민 지역 학교·병원 건립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보시행을 펼쳐왔다.

“20대 초 2만2900V의 고압선에 감전되는 등 10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의 사고였죠. 하지만

“ 재가연대에 16억 부동산 쾌척 등 국·내외 불교계 곳곳서 보시행 ”



불보살님 가피 덕분에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현재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태제 대표는 모태신앙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다. 하지만 진심으로 불교에 깊은 감동을 하게 된 것은 20대 초. 매년 무사히 사고를 넘긴 후 종교에 관심을 갖게 돼 불경과 코란, 성경 등 다양한 종교경전을 탐독한 이후다.

“여러 종교들을 살펴보면 불교가 단순한 기복신앙이 아닌 과학적이고 통찰력 있는 진리의 종교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언제 어디서든 자랑스럽게 ‘내 종교는 불교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죠.”

김태제 대표는 부처님께 귀의한 후 불교대학 등에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었지만 가난한 형편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사찰을 찾고, 명상수행을 하는 등 불교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부처님 말씀을 사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부처님 법을 따라 눈앞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 통찰력 있게 경영에 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경쟁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열중하던 그가 불교계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8년. 당시 김태제 대표가 운영하던 회사가 있던 건물에 불교계 신협단체 ‘경기불교회관’이 입주하게 됐을 때다. 불자인 회사 직원에게 “건물에 불교단체가 입주했는데 형편이 어려워 보증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소식을 접한 그는 망설임 없이 1000만원의 봉투에 넣어 단체에 기부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인연으로 경기불교회관 관장으로 추대된 후 현재까지 불교아카데미, 한국JTS,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다양한 불교계 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외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인도에 불교종합대학을 설립하는 것을 서원하고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로 고통 받고 있는 인도 서민들에게 누구나 스스로 존귀하다는 부처님 말씀을 널리 알려 희망을 심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노력하고 있는 보시행은 금생뿐 아니라 다음 생, 성불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고요.”

수 없이 많은 보시행을 펼쳐왔고, 앞으로도 전세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가진 것을 회향할 생각이지만 이는 “불자로서 해야 할 당연한 도리일 뿐”이라는 김태제 대표. 기부한 내용을 기록조차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곳에 도리를 실천하는 그에게서 보현보살의 온화한 미소가 느껴진다. 김진성 기자

자행회 박명혜 회장

“인생은 무통장 계좌와 같은 것”



신도회를 구성할 것을 조인했다. 1979년 여성신도회보문회는 그렇게 탄생했다. 당시 서울 승가사에서 신행활동을 하던 50여 보살들로 구성된 보문회는 현재 200여 회원으로 성장했다. 박 회장은 보문회 창립회장으로 30여 년을 낙산사, 구룡사, 월정사, 보문사 등 전국 사찰에 탐, 괘불, 석등, 종 등을 불사했다. 전국비구니회관·중앙승가대 건립은 물론 운문사 비구니 스님들의 의료비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장애인지원·장학사업 등 남을 돕는 일이라면 나서지 않은 분야가 없다.

불사마다 앞장서 리더십을 보인 박 회장에게 탄허 스님은 “이런 것이 바로 비용이 들지 않는 불비(不費)보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보문회원들을 위해 기도와 대중공양 준비를 했을 뿐인데 일이 알아서 ‘척척’ 진행 됐을 뿐”이라고 회상하며 “회원들과 함께

“ 장애인 재활 돕는 단체 이끌며 30여 년 동안 전국 불사 도와 ”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켜보니 운명이다 싶습니다. 사찰을 찾으면 제일 먼저 ‘이곳은 이렇게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행회 박명혜 회장(74)은 30여 년 동안 전국의 크고 작은 사찰과 비구니 회관, 병원, 학교 등의 불사를 도운 원력보살이다. 자행회는 자혜학교, 수봉재활원, 자혜직업재활센터 등 산하기관을 둔 심신 장애인 재활을 돕는 단체다.

박 회장의 불사보시는 생활 자체가 보시행이었기에 가능했다. 학창시절, 기독교계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녔던 박명혜 회장은 결혼 후 친구의 손에 이끌려 삼각산 승가사에 찾았다. 우연히 찾은 사찰에서 편안함을 느낀 박 회장은 집안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 이후 승가사와 선학원 새벽예불을 하루도 안 빠지고 다니며 불심을 키웠다. 승가사 대의(大義) 스님으로부터 대도심(大道心)이라는 법명도 받았다. 절하는 법 등 기도와 수행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도 이 때였다.

이후 박 회장은 기도장전에 박차를 가했다. 강화 보문사에서 3000여 기도 정진에 하던 날, 칠보가 가득한 팔란 상자를 받는 꿈을 꿔다. 당시 주지였던 성수 스님에게 꿈 이야기를 하자 스님은 ‘보문회’라는 이름으로

불사보시를 ‘참 재미나게 했다’고 흐뭇해하며 말했다. 박 회장은 “30여 년 속 슈트 자연스레 뚫다보니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에서 나를 찾아가는 공부로,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박명혜 회장은 보문회 활동 중 1985년 故 이방자 여사와 인연을 맺어 자행회 이사로 활동, 2005년에는 회장으로 취임했다. 현재 그는 자혜학교 등 자행회 부설 기관의 시설정비를 돕고 원수들의 독립과 자활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박명혜 회장은 “살면서 선업·악업을 짓는 것은 은행의 무통장계좌에 찍히는 것과 같다. 만일 통장계좌의 잔고를 볼 수 있어 10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 ‘아껴써야겠다’ ‘저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무통장인가 안보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만큼 선·악업을 지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 그냥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허 스님은 ‘허공이 무서운 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한 치의 에누리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남을 안 도울 수 있나요?”

이아은 기자

“불기 2553년 기축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운장대(보물 제684호)

- 용문사 전경
-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 용문사 천불전
- 목각직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 용문사 만동불사
- 성보박물관
- 팔상탱(보물 제1330호)
- 영신회 과불탱(보물 제14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운장대를 둘러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용문사 운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진식 장경각인 운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목각 삼존불, 세조의 고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운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아가기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운장대를 둘러 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운장대를 둘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마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 버스: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9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 승용차(서울):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예천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예천C
-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C
-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예천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 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